

길동이와 함께 '신바람'... 황룡강 봄과 함께 '꽃바람'



장성 홍길동축제
18~20일

‘택시운전사’·‘화려한 휴가’ 상영 5·18 추모 공연·체험·전시·놀이 프로그램 다채
봄꽃 축제와 결합해 화려한 불거리 풍성
국민MC 송해의 ‘전국노래자랑’도 열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부패한 관료들과 탐관오리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 의적이다. 장성군은 각종 문헌 고증과 학술 연구를 통해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홍길동축제’를 열고 있다.

의적 홍길동을 기리는 ‘장성 홍길동축제’(이하 ‘홍길동축제’)가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해 황룡강변을 누빌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제 19회 홍길동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황룡강변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국적인 5·18광주민중화운동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를 비롯한 떠들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5·18광주민중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상영해 5·18광주민중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정규 프로그램은 둘째 날부터 진행된다. 주 무대인 공설운동장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뽀빠이와 함께하는 옐로우 콘서트’, ‘장성고를 축하마당’, ‘관광객 어울림 마당’, ‘옐로우 힐링토크’, ‘홍길동 스마트 퀴즈쇼’, ‘매뚜기 잡기 체험’, ‘옐로우 가족애자 만들기’, ‘서바이벌 활쏘기 게임’을 비롯해 13종의 공연, 22종의 체험전, 8종의 전시가 열린다.

바이킹, 토마스 기차, 수상자전거 등 10종의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장성군 농·특산물 판매대와 향토 음식점도 운영된다.

‘KBS 전국노래자랑’(이하 ‘전국노래자랑’)도 관심을 모은다. 오는 19일 오후 1시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에서 국민 MC 송해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장성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건 제11회 ‘홍길동축제’ 이후 9년 만이다. 초대기수 명단이 화려하다. 성인가요계의 톱스타인 박상철, 김혜연, 우연이가 무대에 오른다.



‘제 19회 홍길동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황룡강변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지난해 홍길동테마파크를 찾은 가족 관광객들이 홍길동캐릭터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이번 축제는 봄꽃 축제와 결합해 의욕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는 데서 주목을 모은다. 장성군은 올해 ‘홍길동축제’를 위해 지난해 100만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화제를 모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의 무대인 황룡강변을 ‘꽃강’으로 조성했다. 제2황룡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 약 10만5000㎡(약 3만1760평)에 이르는 황룡강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꽃장포, 코스모스 등의 꽃을 심었다.

특히 꽃양귀비는 절세미인 양귀비의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봄꽃이다. 양귀비와 달리 마약 성분이 없어 안전하다.

유럽 동남부가 원산지인 수레국화도 봄을 대표하는 꽃이다. 청색, 남청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의 수레국화 중 청보라색이 특히 아름답다.

‘노란꽃잔치’의 주역인 꽃 전문가 문원군(63)씨는 올해 황룡강변에 핀 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겨울 날씨가 매우 추웠던 탓에 번식에 위협을

느낀 식물이 더 많은 벌과 나비를 모으기 위해 꽃을 더욱 곱고 화려하게 피울 것으로 본다.

문씨는 “현재 꽃망울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며 “축제 기간에 맞춰 황룡강변에 형형색색 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봄꽃 축제와 결합한 ‘홍길동축제’가 ‘노란꽃잔치’와 함께 ‘옐로우시티’ 장성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축제기간 이후 27일까지 축제장을 개방해 더 많은 관광객이 황룡강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홍길동축제는 5·18광주민중화운동 기념일과 겹치는 까닭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르지만 봄꽃축제와 결합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할 것이다”며 “봄나들이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축제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황룡강변 꽃길과 이곳을 왕래하는 셔틀기차.



황미르랜드 심터에 조성된 망루



지난해 홍길동축제 개막 공연.

홍길동 테마파크 즐기고 휴파크 캠핑장서 힐링

축제기간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꿈과 희망이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추천해본다.

장성군은 지난 1997년 전문가들을 구성해 홍길동 생가 터와 유물 발굴, 현지 확인 등 고증 작업을 거쳐 복원한 홍길동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매년 ‘길동이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여름철 청소년 야영장은 테마파크를 정원 삼아 산책할 수 있는 색다른 캠핑의 매력으로 캠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4D 영상관에서 ‘홍길동2084’ 등이 상영되고 있고 홍길동 광장 분수에서의 물놀이는 초등학교생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정백리 박수량 선생의 정백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백한옥’이라는 이름의 전통한옥

이 건립되기도 했다.

홍길동에 관한 역사 속 생생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캠핑하고 싶다면 ‘장성 휴파크 캠핑장’이 적격이다.

휴파크 캠핑장은 4인 카라반 7동과 6인 카라반 13동, 글램핑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주변 도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카라반 이용 가격은 성수기(4~10월)에 ▲카라반 4인용 + 캠핑데크 8만원(주말 10만원) ▲카라반 6인용 + 캠핑데크 10만원(주말 12만원) ▲카라반 4인용 + 4인용텐트 + 캠핑데크 12만원(주말 14만원), 비수기에는 ▲카라반 4인용 + 캠핑데크 6만원(주말 8만원) ▲카라반 6인용 + 캠핑데크 8만원(주말 10만원) ▲카라반 4인용 + 4인용텐트 + 캠핑데크 10만원(주말 12만원)이다.



장성 휴파크 캠핑장

예약은 위탁 사업자인 휴파크(대표 정덕진) 홈페이지(www.hupark.com)를 통해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고 PREMIUM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송정시장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단위: 명)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